

# 용산구청불자회 23일 창립

## 회장 김상현씨...종로구청도 12월 설립 준비



서울 용산구청 불자회(회장 김상현·한강3동장·사진가) 23일 오후 6시 원효사에서 창립법회를 봉행한다. 서울 25개 구청 가운데 16번째로 불자회가 창립되는 것이다.

김상현 회장 등 5명의 구청 공무원이 지난 8월말 발기인 모임을 갖고, "부처님의 정법에 따른 불도의 바른 믿음과 정진의 생활화를 통해 따뜻한 용산구를 만들자"는 서원을 세운 지 3개월만에 일과년 성과다.

이날 창립법회에는 불자회 지도부

사인 원효사 주지 영한스님을 비롯해 불자회 30여 회원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상현 회장은 "어렵게 창립된 불자회인 만큼 매일 정기법회, 교리공부, 불우이웃돕기 등을 통해 국민들의 아픔을 알고 보살행을 펼치는 참된 공무원 불자회가 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울 종로구청에서도 불자회 창립이 준비되고 있다. 김기선 씨 등 종로구청 공무원 불자들은 8일 발기인 모임을 열고, 내달중에 불자회 창립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오종욱 기자



서울·부산 한빛은행 불자들은 10-11일 직지사서서 첫 합동법회를 봉행했다.

# 한빛불자회 "마음도 하나"

## 서울·부산 통합후 첫모임 108배·화합토론회 가져

부산과 서울의 한빛 불자들이 10-11일 직지사서 모였다. 98년 한일은행과 상업은행이 한빛은행으로 통합돼, 한일은행 불자들은 서울지부로, 상업은행 불자들은 부산지부로 발원받아 개별적으로 정기법회와 성지순례 등의 신앙을 펴온 이래 첫 합동법회를 개최한 것이다.

부산 서울 한빛은행불자회의 합동법회가 열린 직지사는 행원 불자들의 신심과 정진의 열기로 가득했다. 황익선 서울불자회 부회장, 현동관 조직부장, 이봉수 부산불자회 부회장은

을 비롯한 40명의 참석 회원들은 서로 반가운 인사를 나누며 도반애를 확인했다.

합동법회를 주관한 하명찬 부산 한빛은행불자회 회장은 "이번 합동법회를 통해 몸은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하나라는 것을 새삼 확인하게 됐다"고 말했다.

행사동안 행원 불자들은 새벽 예불, 108배, 관음정진, 법문 등으로 신심을 다지고 한빛은행 불자회의 발전과 화합을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다. 부산과 서울 불자회는 은행 게시판의 불교동리방을 활용, 행사소식을 나누고 도반들의 대소사를 챙기는 한편 합동법회를 연중 정례화하기로 했다.

천미희 기자

# 운불련 따뜻한 세상 만들기

## 대구·제주 등 지회 택시 보시함 털어 노숙자·무의탁노인·소년가장 도와

올해만 11번째, 대구운불련은 회원의 택시에 설치한 보시함으로 연간 2천여 만 원의 성금을 모으고 있는데, 이중 일부를 무료급식소에 보시한다.

2월 제주시 제주양로원에 전달된 난방연료 역시 제주운불련에서 설치, 운영하고 있는 보시함의 성금이 있어 가능했다. 연간 3백여 만 원의 성금을 모으고 있는 제주운불련은 경유가 가득 든 드림통 6개를 양로원에 전달할 것 외에도 심장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와 소년소녀가장들을 돕고 있다. 또한 12월 중에는 시에서 추천한 무의탁 노부부 10쌍을 택시에 모시고 제주를 일주하는 무료관광봉사도 할

계획이다.

이러한 봉사는 대전, 수원, 안양, 부산, 광주 등 다른 지회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의 무의탁노인, 소년소녀가장, 장애인 등을 돕고 있으며, 산간오지나 낙도에 살고 있는 어린이들을 초청해 송년파티도 열어주고 있다.

보시함에는 승객들의 돈만 들어있는 게 아니다. 대전운불련의 경우, 아침 첫 수익금을 기꺼이 보시함에 넣는다. 이타행을 실천하는데 자신의 정성도 조금이나마 보태고 싶다는 마음에서 실시하고 있는 것. 방법은 다르지만 다른 지회 역시 보시함의 성금을 결산하면서, 회원들의 수익



대구지역 소년소녀가장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있는 대구운불련 회원들.

금 일부를 승객들의 성금에 보태고 있다.

또한 운불련은 후원금 운영을 투명화하기 위해 복지 담당자가 지원 대상에 대한 사전 조사를 철저히 하고 회계 담당자는 매월, 매분기, 연간 단위로 보시금 사용 내역을 관리하는 등의 노력도 하고 있다. 부산은 불련에서는 지원 대상자 선별에 50여 회원들이 모두 나서 현장에서 관련 정보를 모으고 자체적으로 선정

해 지원하고 있다. 부산지회는 현재 부산 남해재활원과 소년소녀가장 6명에게 매년 3백 만 원을 후원하고 있다.

운불련 김주본 회장은 "운불 불자들은 하루 1백-2백여 승객을 만나고 있어, 포교하고 모금하는 일이 용이하다"며 "승객들의 보시금을 투명하게 운영해, 보다 더 많이 불우한 이웃들을 돕겠다"고 말했다.

오종욱 기자 gobaeou@buddhapia.com

# 포돌이 신행 '신바람'

## 전국 경찰불교회 발족후 회원 부쩍 당당히 불자신분 밝히고 법회 동참

전국경찰불교회(회장 김종겸·청와대 치안비서관)가 창립 이후 경찰불교회의 정기법회에 참여하는 경찰 불자 수가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전국경찰불교회에 따르면 4월을 기점으로 법회 참석자가 평균 15배 가량 늘었다는 분석이다.

8월 본회에서 열린 경찰불교회 법회에는 무려 60여 명이 참석, 법당은 물론 복도에까지 들어설 정도였다. 평균 20-30명에 불과했던 예전의 참석 수와 비교하면 2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 같은 현상은 서울, 부산, 전남 지방경찰청과 국립경찰병원 등은 물론 대전북부, 대구서부, 수서, 성동, 도봉, 성북, 강남 경찰서 등 일선 경찰불교회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다.

이에 대해 전국경찰불교회 박희영 사무국장은 "전국경찰불교회의 창립을 지켜본 경찰 불자들이 경찰서 내에서 불자임을 뽐내며 밝히고 부담 없이 신행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다"며 "전국경찰불교회 회원들이 각 경찰서 법회마다 동참했던 점도 이러한 상황을 만드는 데 한 몫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전국경찰불교회는 각 경찰서 법회활성화와 분위기를 지속적으로 유지시키기 위해 각급 경찰서에서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하고 지도법사와 법회운영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전국경찰불교회는 경찰불교회의 창립을 직접 견인하는 역할 외에도 이들 경찰불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후견인 역할도 적극적으로 할 예정이다.

### 우리 모임에선

**KAI 법우회 금강경강의**  
대우종합기계(주) KAI 법우회는 11일 전남 여수 향일암과 흥곡사에서 사찰순례법회를 봉행하고 2001년 한 해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졌다. 법우회는 한편 27일 지도법사 원공스님을 모시고 '금강경강의' 제5강을 진행했다.

**석불회 108배 정진**  
대한중석초경(주) 석불회는 6일 최정사에서 11월 정기법회를 실시했다. 이번 법회에는 30여 회원들은 108배와 정진 등을 하며 신심을 돈독히 하고 신행 생활에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을 서원했다.

**성북승무소 송광사 순례**  
성북승무사무소 법우회는 13-14일 송보종찰 송광사에서 '사찰체험' 행사를 가졌다. 신심 고양을 물론 회원간의 유대 강화를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에는 법우회 회원들의 부인들로 구성된 승만부인회도 동참했다.

**인터넷 화상 무료 법률 상담**  
law.buddhapia.com  
전화상담: 평주말-금 02-722-4162  
팩스상담: 평주말-금 02-722-4162  
02-722-4162

오종욱 기자

### "생활속 육바라미 실천"

**보현법우회 수안스님법회**  
경남 거제 삼성중공업 불자 사원들의 모임 보현법우회(회장 원정복)가 14일 소식지 <법우> 창간 1주년을 기념해 '통도사 축서암 수안스님 초청 법회'를 봉행했다(사진). 법문과 생활 불교, 법회일정 등을 수록한 <법우>는 거제지역 관공서와 군부대, 복지시설 등에 배포돼, 신행의 활성화를 꾀하는 데 한 몫을 담당했다.

**게시판**  
**알림**  
▲조계사 기초교리강좌=조계사는 '부처님을 향한 처음 발걸음'을 주제로 34기 불교기본교육을 실시한다. 주야간반은 27일, 토요일은 24일부터 3개월간 진행되며, 불자예절과 기초상식, 부처님 생애, 불교교리 등의 교과목이 마련됐다. (02)720-1390

**모집**  
▲일반한 용기=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일반한 서비스 1회용 용기 후원자를 모집한다. 용기는 무의탁 독거노인들에게 제공하는 일반한을 담는데 이용된다. (02)2203-3677  
▲청소년 진로 교육=삼전종합사회복지관은 청소년을 위한 진로 서비스를 제공한다. 건강관리 상태를 체크하고 직접적으로 원자의 환부를 치료한다. (02)421-6077  
▲무료법률 상담=부산 옹호종합사회복지관은 매월 둘째 넷째 화요일에 무료 법률 상담을 한다. 민, 형사 관련 일반 법률에 대한 상담이며 사전 접수해야 한다. (051)628-6737



제시장, 법우회 회원 등 2백여 명이 참석한 이날 법회에서 수안스님은 법어를 통해 "생활속에서 육바라미를 힘써 행하는 것으로 정진의 근본을 삼으라"며 "앞으로 보현법우회를 중심으로 거제 불교가 활성화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천미희 기자

**'마음고인 禪房'**  
마음고인 선방의 명상 프로그램들은 진리를 찾는 모든 분들을 위해 열려 있습니다.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정목스님과 함께 하는 '나를 찾는 명상'
- 매월 음력 초사흘 오전 10시 30분: 정기법회

강남구 신사동 4거리 (전철 3호선 신사역 5번 출구)  
☎ 02) 548-0218 FAX 02) 548-0219  
E-mail : maumgoyo@hanmail.net

**ENGAGED BUDDHISM**      격월간 참여불교 2001년 11·12월호      일반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습니다.

# 참여불교 '맑은 종교 만들기'

값 7,000원      1년 정기구독 35,000원

내가 오사마 린라에게 말하고 싶은 것은.. / 턱낫한 스님

**특별기고**      종교와 반부패      시민사회와 종교사회복지

**특집 II**      주5일 근무제와 종교계      - 레저문화와의 충돌 불가피      - 젊은 층 끌어들이 프로그램 개발 주력해야

**만남**      정도회 지도법사 법륜 스님

**경두담론**      주체의 부재와 제도의 문제      - 불교계 성명서를 통해서 본 것

**생활속의 명상**      자ური 시간을 수행의 시간으로 활용하라

**교계초점**      달라이 라마 2001 방한 왜 무산됐나

**기사열전**      60-70년대 재가불교의 거목 덕산 이한상

종교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니 역할은 커녕 싸우거나 말라, 그저 가만히 있으면 좋겠다는 비아냥도 들려옵니다. 훌륭한 스님, 목사님, 신부님들이야 서운하시겠지만 종교계를 바라보는 세간의 시선은 여전히 엄지손가락만 들어 올린 채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원인은 돈(money)에 있습니다. 심치치 않게 벌어졌던 불교계의 난부극, 담임목사직 세습 갈등 등의 내면에는 자본주의 사회의 이상인 '돈'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돈(money)의 위력 앞에서는 자신들의 절대적 신념체제인 위대한 성인들의 가르침도 한낱 휴지조각에 불과한 모양입니다.

이러한 때 불교·개신교·천주교 NGO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소리 높여 외칩니다. 종교바로세우기의 첫 번째 목표는 '교단제정의 투명성 확보'라고 말합니다. 그들의 우렁찬 목소리를 '참여불교' 11·12월호에서 만나십시오.

□ 특집 I - 이 시대 한국종교가 실현해야 할 경제윤리      종교와 자본주의: 이데올로기적 동조와 종교의 산업화      한국교회의 건전한 재정운영을 위하여      가톨릭 교회의 청빈: 역사적 경험과 과제      종교NGO네트워크 발족 선언문      맑은 종교를 위한 경제윤리헌장      종교NGO네트워크 사업계획

**참여불교재가연대**  
Buddhist Solidarity for Reform  
www.buddha21.org  
주 310-340 서울 서초구 덕성동 30-8 연호빌딩 205호  
전화 02)744-7799      팩스 02)744-3424      buddha21@yodan.net

# 성을 통한 깨달음!

두 권의 책과 CD로 구성된 이 세트는, 5천 년 동안 유일하게 성(性)을 영적인 성장의 필수불가결한 부분으로 포용해 온, 종교적인 전통인 탄트라(Tantra, 密教)의 수행 방법과 그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인**      인간은, 성행위의 절정 속에서 두 가지의 일이 일어난다.      먼저, 성행위시 에고가 사라진다. 에고 없음이 창조된다. 잠시 동안, '나'는 없다. 잠시 동안, 자신을 기억하지 못한다. 오로가들은 하나의 자기 소멸의 상태이다.      성의 경험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잠깐 동안 시간에서 시간 없음이 창조된다. 오로가들 속에서, 시간 감각은 존재하지 않는다.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다. 오직 현재 순간만이 있다. 현재는 시간의 일부가 아니다. 현재는 영원이다.      인간의 성에 대한 갈망은, 여자의 몸을 향한 남자에 의한 것이 아니며, 그 반대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 열정은 어떤 다른 것을 향한 것이다. '에고 없음'을, '시간 없음'을 향한 것이다. -오쇼-

**부록: 파트너와 함께 하는 탄트라 CD**

탄트라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이 CD는 성(性)에 명상을 도입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좋은 입문서 역할을 해 주며, 성을 통해 깨달음을 이르게 해 주는 '고대의 사랑의 과학(Tantra)'에 근거하여 오쇼의 제자들이 카비사, 의학 박사 디안 요기, 와우드, 알비나에 의해 만들어졌다.      전 세계적으로도 유명한 <성적인 환희의 예술(The Art of Sexual Ecstasy)>의 저자인 마르코 아난드판만 아나나, <New Frontiers> 잡지의 격찬을 받은 바 있는 이 명상법은 아름다운 배경 음악과 함께, 준비와 정화의 단계를 거쳐, 일상적인 방식으로는 표현되지도, 보여지지도, 그리고 느껴지지도 않았을 그런 황홀경의 에너지 상태에 이르도록 도와 준다(총 65분: 1. 지시어와 배경 음악 32:30 / 2. 배경 음악 32:00)      \* 세트 가격 18,000원

**新 탄트라**      성에서 초의식까지      오쇼

◎ '탄트라 CD'에는 설명서와 함께 자세한 수행법이 담겨 있습니다!

도서출판 황금꽃 / www.goldenflower.co.kr/ 전화 주문 02)711-4227, 8 / 팩스 02)711-4229